

# 개미에게 배우라

찬양해요

찬송가 496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잠언 6:6-11

- 6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 7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 8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 둔다.
- 9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 10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하면,
- 11 네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말씀 이해하기

솔로몬은 나태함을 경고하면서 개미를 관찰하라고 권면합니다. 개미는 우두머리가 없어도 스스로 일하는데, 여름에는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가을에는 추수의 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양식을 모으는 기민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력도 희생도 없이 낮잠만 자면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 않고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 매일 나태하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일터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결심합시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솔로몬은 개미로부터 얻어야 할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7-8절)?
  - ▶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하고, 추수 때에 를 모아 둔다.
2.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9~10절)?
  - ▶ “조금만 더 , 조금만 더 눈을 , 조금만 더 팔을 베고  있어야지” 한다.
3. 게으르게 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11절)?
  - ▶ 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4.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게으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와 일터, 가정에서 이러한 나태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가족과 함께 서로 나누어 봅시다.
5.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태한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 달라져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 서로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개미로부터 배우라는 솔로몬의 조언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실한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